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Novatek sticks to LNG project plans despite downturn

러시아의 Novatek이 최근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하락 및 경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요 LNG개발 프로젝트들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됨. 회사측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의 비용으로 회사를 운영중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낮은 에너지가격에도 캐쉬플로우를 창출할 능력은 남아있다고 밝힘. (Upstream)

글로벌 발주량 2개월 연속 증가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Clarksons에 따르면, 4월 전 세계 발주량은 114만CGT(61척)로 중국이 73만CGT(38척, 64%)를 수주하며 1위, 한국은 23만CGT(8척, 20%)로 2위, 러시아가 6만5천CGT(7척, 6%)로 3위를 차지했다고 보도됨. 4월 발주량 114만CGT는 전년동기대비 62% 수준이지만 3월 이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Capesize earnings down by \$1,000 overnight as bear market bites

발틱해운거래소에 따르면, Capesize 벌크선 스팟운임이 하루만에 1,000달러가량 폭락했다고 보도됨. 수요일 기준 주요 5개 벤치마크 노선들의 평균운임이 전일대비 956달러 하락한 하루 5,301달러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이는 전주대비 23% 하락한 수준으로, BEP수준의 운임보다 300달러정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수은, 대선조선 매각 추진

2010년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갔던 대선조선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고 보도됨.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다음 달 3일까지 대선조선 매수 희망자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는다고 보도됨. 매각은 '스토킹 호스'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도됨. 참고로 수출입은행은 대선조선의 지분 83.0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짐. (선박뉴스)

Hapag-Lloyd committed to ordering big boxships – just not yet

Hapag-Lloyd CEO는 현재 해운시황을 고려했을때 초대형컨테이너선을 당장 발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힘. 하지만 회사가 운영하는 컨테이너선 선대 규모를 축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회사는 현실적으로 수개월 가량 발주가 지연될 전망이다이라고 밝힘. (TradeWinds)

LNG선 오더북 34%가 미용선

글로벌 LNG선 수주잔고 3분의 1이 용선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선주가 용선 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은 선박이라고 보도됨. 현 LNG선 오더북은 FSRU를 포함하여 모두 132척이며 용선계약을 확실하게 체결하지 않은 선박은 45척, 34%라고 보도됨. (선박뉴스)